

서울특별시의회
제315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
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청원

제 안 설 명



2022. 12. 20

서울특별시의회
유정희의원 (더불어민주당, 관악4)

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

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유정희의원입니다.

□ 지난 11월 14일 본 의원의 소개로
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 이진순 외 5명이

TBS의 설립 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

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을 철회할 것을

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.

□ 동 청원의 제안 요지는 조례안 폐지보다는

시민의 공공미디어 자산이며

시민참여의 통로로서 방송플랫폼의 역할을 하는

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

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.

□ 또한 해당 폐지조례안은 오히려

TBS의 공정성·공공성·재정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

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공론장을 여는 것이

우선되어야 한다는 시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이

담겨 있었습니다.

- 그러나 청원의 대상인
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
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은 청원제출일(2022.11.14.)
다음 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(2022.11.15.)에서
가결되었습니다.

- 또한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
관한 조례」가 서울시의 재의요구 없이 폐지(2022.12.2.)가
확정됨에 따라 청원 대상이 부존재하게 되었습니다.
이에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조차 할 수 없게 되어
유감이라는 점을 밝히며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